아프간에 고대 불교국가 존재했나

메스 아이낙 유적서 불교 유물 잇달아 발굴

박영빈 객원기자

아프가니스탄 중부 메스 아이낙(Mes Aynak)의 유적지에서 7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패엽경 사본들이 발견됐다. 이번 발견으로 해당 유적지가 현장 삼장(602~664)이 방문했던 고대 불교국가 '브리스타나(Vrjisthana, 弗栗恃薩儻那國)' 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놀라운 발견을 7월 26일 '마이니치 신문' '싱저우 데일리' '메나 FN' 등의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동남쪽으로 약 40㎞에 위치한 메스 아이낙 유적지. 3~7세기경 번성했던 대규모 도시로 추정되는 이곳은 2009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이 진행됐다. 유적지에서는 소조불과 소조탑, 불화 파편 등 불교 유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소조불 가운데는 등신대 크기로 전신에 금이 입혀진 좌불상과 금으로 상호가 그려진 불두 등이 발견돼 당시의 번성한 불교문화와 도시의 세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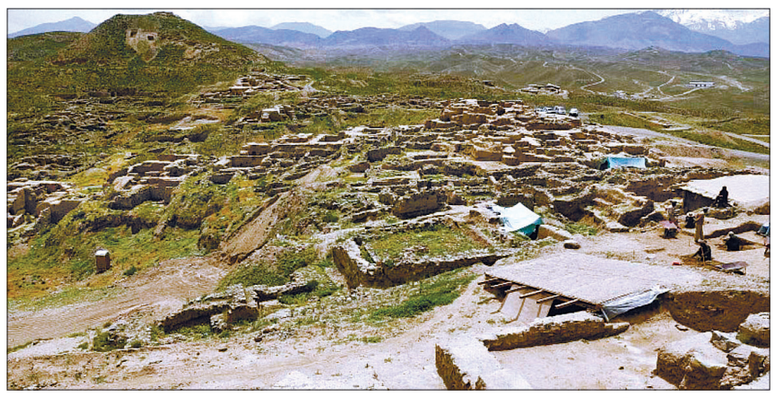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도시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언덕의 사면에서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잇달아 다량의 패엽경 사본들이 발견됐다. 발굴을 주관하는 아프간 고고학국은 "불탑도 아닌 유적에서 다량의 패엽경이 발굴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경전을 보관하는 도서관 등의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독을 담당한 교토 불교대학 마츠다 카즈노부 교수는 "최근 해독이 완료된 일부 사본들은 모두 싣담(siddham, 悉曇)체의 산스크리트어로 나무껍질에 쓰여 있다. 초기 대승불전인 〈반야경〉 〈미륵하생성불경〉 등으로 판명됐다"고 전했다. 마츠다 교수는 초기 대승불전이 다량으로 발굴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첨언했다.

7세기 추정 패엽경 사본 비롯
소조불 · 소조탑 등 파편 나와
현장법사 거쳐간 브리스타나
해당 유적지일 가능성 높아져

또한 이번 사본들의 발견으로 메스 아이낙 유적지가 고대에 잊힌 불교국가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출토유물보전과 복원에 협력하고 있는 도쿄예술대학의 마에다 코사쿠 교수는 "대량의 불교유물 발견과 위치적인 면에서 유적지가 현장 삼장의 〈대당서역기〉에 등장하는 '브리스타나' 와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마에다 교수는 "현장 삼장이 서역에서 대승불전을 가져와 번역했기에 이곳을 거쳐 인도를 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 삼장은 〈대당서역기〉에서 고대의 불교국가 브리스타나에 대해 "불률시살당나국(弗栗恃薩儻那國)은 기후가 매우 춥고, 사람들의 성격은 과격하다. 그러나 삼보를 깊이 믿으며 학문을 숭상한다. 덕행이 있는 이를 공경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아프간 중부의 메스 아이낙 유적지 전경, 사진출처=산케이신문

한편, 유적지 주변에는 세계 최대급의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동 광산이 산재해 있다. 오랜 내전으로 경제개발을 진행중인 아프간 정부는 지난 2007년 30년간의 채굴권을 30억 달러(한화 약 3500억 원)에 중국 기업에 매각, 현재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아프간 고고학국은 광산채굴이 유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전체 유적의 10%만이 발굴됐다. 발굴을 완료할 때까진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고학국의 제소를 받은 유네스코 또한 유적의 보전과 중요성을 아프간 정부에 권고했다. 아프간 정부의 유적보호와 개발의 균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日사찰 연꽃차 캔 음료로 시판

식물학 박사 타카하다 스님, '연려차' 개발해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으로 다양한 상품을 만드는 것은 불교계에 익숙한 일이다. 그러나 시판을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의 한 스님이 연꽃차를 캔 음료로 만들어 시판에 나서 화제다. 이 소식을 7월 26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액사이트 재팬'이 보도했다.

나라(奈良)현 고죠(五條)시에 소재한 쇼렌지(生蓮寺)는 9세기경에 세워진 고찰로 연꽃 명소다. 그러나 원래 사명이 무색하게 연꽃이 한 포기 없는 도량이었다. 주지인 다카하다 키미노리(高畑公紀, 42) 스님은 "연꽃이 피는 절인데 연꽃이 없어 늘 안타까웠다"며 연꽃을 재배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타카하다 스님은 "어릴 때부터 식물이 좋아서 항상 꽃이나 나무를 헤집고 다녔다"며, 식물에 대한 애정이 연꽃 조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실제 스님은 츠쿠바대학과 교토대학에서 식물학과 유전자 공학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스님이 직접 품종 개량한 연꽃도 있다.

사명에 맞는 도량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경내에 120종의 연꽃이 약 300개의 함지에서 자라고 있다. 작년에는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연꽃도감을 출판했다.

다카하다 스님은 연꽃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차를 생각했다. 연꽃차는 이미 여러 곳에서 개발됐지만, 캔 음료로 시판된 게 없다는 데 스님은 주목했다. 절의 연잎을 사용해 만든 차는 잎의 채집시기와 건조법 등의 시행착오를 거쳤다. 약 3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연꽃의 특유의 풋내를 없애고 깔끔한 풍미의 연꽃차가 탄생했다. 차의 이름은 연꽃의 아름다움을 마신다는 뜻의 '연려차(蓮麗茶)' 라고 지었다.


직접 개발한 연꽃차를 들어 보이는 다카하다 스님.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완성된 레시피는 음료회사에 위탁해 캔음료로 완성, 현재는 사찰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시작했다. 스님은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자, 피안과 차안을 연결해 주는 꽃이다. 모두 이러한 점을 느끼며 음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억만장자 통 큰 기부… "달라이라마에 영감"

샌디에이고대 '연민' 연구에
한화 1187억 원 쾌척 '화제'
달라이라마 만나 중요성 느껴


미국 샌디에이고대학에서 '연민' 을 연구하는 기관에 1억 달러를 쾌척한 데니 샌포드.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미국의 억만장자 토마스 데니 샌포드(Thomas Denny Sanford · 83)가 불교적 공감과 연민에 대해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대학에 1억 달러(한화 약 1187억 원)를 기부했다. 달라이라마의 철학 중 '행복의 원천으로서 연민의 가치' 에 영감을 받은 것이 그가 기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다.

은행권 재벌이자 자선가 데니 샌포드는 지난 2017년 달라이 라마를 처음 만났다. '국경 없는 관용' 주제 투어로 방미 중인 달라이 라마가 샌디에이고대학 졸업식 연사로 왔을 때 비공개로 만난 것이다.

데니 샌포드는 "달라이라마의 업적과 가르침에 영감을 받았다. 과학과 종교의 교차점에 대한 달라이라마의 흥미는 깊고 심오했다"며 "나는 그를 통해 은혜, 인간성, 친절 등이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기부 취지를 설명했다.

데니 샌포드의 기금은 그의 이름을 따 샌디에이고대학 내 신설된 '데니 샌포드 공감과 연민 연구 기관(Denny Sanford Institute for Empathy and Compassion)' 의 연구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해당 기관의 연구원들은 연민의 신경학적 기능을 연구, 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한 '연민 증진 커리큘럼' 을 수립한다. 또 간병인 및 환자 복지 증진을 위한 방법도 연구한다.

그는 "이 선물(달라이 라마의 가르침)은 인간의 시야를 넓힌다"며 "의사들은 연민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지만, 현대의학의 가혹한 현실 탓에 종종 길을 잃는다. 그러나 만약 의료계 종사자들이 '연민' 의 감정을 느끼고 증진시키는 것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세상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데니 샌포드는 앞서 2013년에도 신약 및 치료제 개발 연구 센터 설립을 위해 샌디에이고대학에 1억 달러를 기부했다. 샌디에이고 지역 유니언-트리뷴지(The San Diego Union-Tribune newspaper)는 이에 대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2018년에도 아동 폭력 및 차별 근절을 위한 샌디에이고대학 교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기부했다. 현재까지 샌디에이고대학 및 동 대학 관련 기간에만 최소 4억5900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50인' 에 이름을 올렸다.

데니 샌포드는 미국의 퍼스트 프리미어 뱅크(First Premier Bank) 창립자이자 지주회사 유나이티드 내셔널 기업(United National Corp)의 CEO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사망 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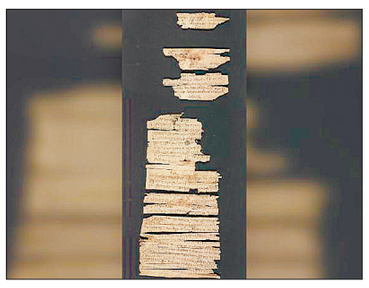
美의회도서관, 간다라 불교 문헌 공개

2000년 된 희귀 불교 문헌… 보존 상태도 양호

미국 의회 도서관은 7월 29일(현지시간) 2000년 된 희귀 불교 문헌을 공개했다. 초기불교 역사 중에서도 형성기의 불교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헌은 아프카니스탄 북부의 카불 지역과 파키스탄에서 발견된 간다라 양식의 문서다. 현재까지 간다라 필사본은 몇 백 권만이 전해오며, 불교 문학의 초기 발전 단계를 연구하는데 주요한 단서로 꼽힌다. 공개된 문헌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출현과 미래의 부처 13명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본 텍스트 중 양 끝 부분을 제외한 약 80%가 보존됐다. 관계자는 "이 엄청난 문헌을 대중과 공유하고 싶었다"며 "많은 사학자들의 노력으로 매우 잘 보존됐다"고 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7월 29일 공개한 희귀 불교 문헌 일부. 이 문헌들은 약 20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출처=CNN

하지만 훼손에 취약한 점이 문제다. "미 의회 도서관이 지금까지 다뤄온 유물 중 가장 복잡하고 훼손되기 쉬운 작품"이라는 전언이다. 연구가들은 수년째 해당 문헌의 보존 처리법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미 의회 도서관은 해당 문헌의 텍스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혈관을 뻥!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 2회 공복에
막힌 혈관을 뻥!뻥! 뚫어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혈관관리
혈통으로
맑은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혈관나이를 젊게하여 100세 건강실현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농협 : 010-9003-6767-29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